

大學의 北方交流

任 永 宰
(檀國大 英語英文學科)

현재 세계는 冷戰體制의 붕괴와 더불어 東歐 共產政權의 몰락이라는 世紀的 變革期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도 2~3년 전만 해도 상상해 볼 수도 없었던 과감한 北方政策을 천명하고 있고, 이미 일부 東歐圈 國家들과는 국교를 수립했거나 준비중에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大學들도 앞을 다투어 東歐圈은 물론 北韓과의 交流를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불행히도 벌써부터 일부 大學들이 충분한 준비도 없이 他大學과의 경쟁이나 學校弘報 차원에서 北方交流를 즉흥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문맥 속에서 순수한 교육 기관인 大學의 國際交流, 특히 오늘 같은 大變革期의 北方交流가 어떤 의미와 사명을 갖는 것인지 음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디 國際關係 분야에는 전연 문외한인 필자이므로 순전히 상식선상에서 말한다면 國際交流란 文物 간에, 내것을 他邦에 소개하여 알려주고 또한 역으로 남의 것을 소개받아 배움으로써 我邦과 他邦의 발전은 물론 세계의 발전과 평화를 도모하자는 것이 취지이고 목적일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國際交流는 ‘世界化’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世界化 과정으로서의 國際交流, 특히 오늘처럼 半世紀 동안 人間事의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쳐왔던 共產主義가 송두리채 붕괴되어 가고 있고, 이와 더불어 軍事文化의 힘이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渦中에서의 國際交流는 자칫 혼돈과 자아 상실 속에서 방황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에게는 거의 半世紀 동안 미지의 세계로 존재해 온 北方과의 交流에서는 그러할 위험성이 더욱 크다 할 것이다.

이처럼 大變革期에 미지의 지평을 열어 가고 있는 北方交流이므로 大學의 北方交流는 더욱 큰 의미와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 하겠다. 大學의 國際交流, 특히 北方交流는 순수한 學術情報의 交流를 大本으로 삼는 것으로 大學精神의 하나인 開放性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고 본다. 大學의 開放性은 열린 마음으로 모든 思想 및 理念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을 발전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도량이며, 나아가서는 보다 높은 차원에서 異質的 個體들의 同質性을 추구하는 屬性이며 探究精神으로 이어지는 大學精神이다. 따라서 大學의 國際交流, 특히 北方交流는 물론 순수한 학문 교육 및 문화의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지만, 오늘날

과 같은 變革期에 있어서는 軍事的 일과 煽動方式의 낡은 질서를 깨끗이 청산하고 多樣性의 인식하에 새로운 價值體系 확립을 위한 새 질서 수립의 정신적·이념적 그리고 이론적 바탕을 제공해 주는 성격의 交流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世界化를 지향하는 世紀的 變化 속에서 轉換期의 현실적 갈등 극복을 위한 길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 學術交流와 더불어 大學의 北方交流가 떠맡아야 할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일 것이다.

특히 世界化 과정에서 홍수처럼 밀려오는 外來文物 속에서 民族的 自我를 일깨워 주고 民族的 同質性을 확인·유지시켜 줌으로써 外來文物에 대한 고통 정리를 해주는 일이 大學의 國際交流가 선도해야 할 일 중의 하나일 것이다. 變革期에는 새로이 전개되는 地평에 대한 흥분감, 外來文物에 대한 지나친 호기심 내지 맹목적 추구에 물입되어 개인의 自我, 더우기 民族的 自我마저 상실하고 방황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지적할 것은 순수한 성격의 大學의 國際交流가 政治 및 經濟體制를 전연 달리하는 정부 간의 관계를 순화시키고 정상 관계 수립을 위한 촉매 구실을 하는 예가 종종 있다는 점이다. 理念을 달리하는 정부 간의 交流는 정부 차원에서는 접근 시도가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大學의 國際交流는 學問·教育·文化의 世界化를 추구하는 순수한 非政治的 交流이므로 어떠한 政治體制의 정부와도 접근이 용이하고 자연스럽다. 이러한 성격의 大學 간의 交流가 밀거름이 될 때 政府와 政府 간의 關係 改善, 심지어는 敵性國家 간의 관계 개선도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學問의 世界化를 추구하는 순수한 大學 간의 國際交流가 政治·經濟는 물론 人類의 世界化를 촉진시키는 매개체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다.

筆者가 奉職하고 있는 檀國大學의 實例를 들어 보겠다. 檀國大는 우리나라의 많은 다른 大學들과 마찬가지로 歐美 등 세계 여러 나라의 大學들과 姊妹關係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헝가리, 폴란드, 蘇聯 등 共産國 國家의 大學들과 자매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修交한 헝가리의 경우, 檀國大는 이미 1987년부터 에스페란토學會(會長·檀國大 張忠愷總長)의 매개로 헝가리 최대의 工科大學인 부다페스트工大와 비공식 關係를 유지해 오다 1989년 2월에는 공식 姊妹關係를 체결하여 이미 學生交流와 教授의 상호 방문은 물론 學術交流를 실시하고 있다. 알려진 바로는 이들 두 大學의 關係는 韓國과 헝가리 國交關係 수립에 이바지하였고, 현재에는 科學技術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KIST, 檀國大 그리고 헝가리 정부의 科學아카데미 및 부다페스트工科大學 사이의 4者 協力體制의 정착을 위한 共同協力 센터 설치에 두 나라 정부가 합의를 보았고 이를 위한 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大學의 國際交流는 비록 그 범위는 정부 간의 관계의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그것의 정신적 받침대를 제공해 주고 때로는 國交 수립을 위한 苗床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부 간의 交流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와 과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최근 여론의 비판 대상이 되고 있는 大學의 北方交流는 순수한 學術交流의 바탕 위에서 하루 속히 정상화되어 오늘과 같은 世界化의 大變革期에 정부나 민간 차원의 北方交流를 선도하는 길잡이 노릇을 할 수 있는 모범적 交流가 되어야 할 것이다. *